



“미래엔 디지털인쇄가 대세이룰 것”

(주)미래엔컬처그룹(대표이사 김영진)은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까지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 홀에서 ‘디지털 인쇄와 친환경 인쇄 컨퍼런스’ (DPEM 2010 : Digital Printing & Environment-Friendly Printing 2010) 행사를 가졌다.

디지털인쇄 사업 진출을 기념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고객초청 프로모션 행사로, 김영진 미래엔 사장, 한국HP 조태원 부사장을 비롯해 디자인 하우스 황태영 상무, 더북컴퍼니 천세균 이사, 서울문화사 민병윤 국장, 한국HP 김

병수 이사, HP AP 위니 흥 Regional Segment Manager 등 미래엔컬처그룹의 주요 고객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진 사장은 “지난 6월 미래엔이 디지털인쇄사업을 새로이 런칭하며 새 시대에 맞는 출판인쇄업계의 모습을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컨퍼런스에 대한 출판, 디지털 인쇄관련 리더들의 호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앞으로도 DPEM 2010과 같은 출판·인쇄·리테일·금융업계의 협력 및 정보교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준록 디지털사업과 과장

이번 컨퍼런스는 HP Asia Pacific & Japan의 위니 홍씨가 인쇄산업 패러다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준록 미래엔컬처그룹 디지털사업과 과장이 디지털 인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AP Printing Consultant인 보벤 렌더 레슬리 씨를 대신해 안혜정 월간 인쇄계 이사가 친환경 인쇄의 세계에 대해 발표했다.

HP 아태지역 담당 매니저인 위니 홍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출판산업의 경우 하드커버는 35%, 소프트커버는 55%가 반품돼 폐기되고 있다. 선인쇄 후 판매라는 출판인쇄방식은 결국 재고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판업 대표들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니 홍은 “HP의 경우 오프셋을 디지털로 가변화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기존에는 3년 정도의 재고분을 갖고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1~3개월의 재고분만을 갖고 있으면 된다. 또한 절판없이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

고 있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 인쇄는 인쇄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준록 미래엔컬처그룹 디지털사업과장은 “미래엔은 디지털인쇄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래엔이 보유하고 있는 인디고7000은 빠른 생산과 함께 국제표준 CMS(ISO12647)를 통한 고품질인쇄가 가능하다. 행사장에 전시된 제품들을 보면 오프셋인쇄물과 디지털인쇄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 인쇄 홈페이지를 구축해 인쇄주문부터 제품구입까지 가능할 예정이며, 첨단 IT기술의 접목을 통해 인쇄의 과학화를 이루어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 시작 전에 참가자들은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인물 개인 사진을 찍고, 책표지에 인쇄될길 원하는 나만의 문구를 남겼다. 그런데 컨퍼런스가 끝나기도 전에 미래엔 성남인쇄공장에서 디지털인쇄로 제작한 책과 사진이 행사장에 도착해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과 함께 나만의 문구가 표지에 인쇄된 ‘남아공에서 살아남기’가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

(주)미래엔 컬처그룹



미래엔컬처그룹(대표이사 김영진)은 지난 1948년 설립하여, 62년간 대한민국의 교육, 출판, 인쇄문화를 선도해 온 교육출판 전문 기업이다. 미래엔은 지난 2008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더 큰 비전을 선포하며 ‘대한교과서’에서 ‘미래엔컬처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한교과서’는 미래엔이 창립 이래 60년간 사용해 온 이름으로 교과서, 참고서, 출판, 인쇄 사업 등 4대 핵심 사업군을 영위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 대표 인쇄기업이다.

미래엔은 1949년 10종 19책의 교과서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 중, 고등학교 국정 및 검정, 인정 교과서를 발행하여 교과서 업계 최정상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개발과 인쇄부문에서 앞서왔던 미래엔의 노하우는 미래엔의 초중고 참고서 사업의 바탕이 되었다. 인력이나 시설, 규모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어 초등에서 중, 고등에 이르는 양질의 학습 참고서 개발로 이어졌다. 출판 분야에서도 아이세움, 북폴리오, 아이즐박스, 휴이넘, ENG-up의 5개 출판 브랜드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우수 단행본들을 출판하고 있다.

미래엔이 창업 초기 교과서 발행을 위해 시작했던 인쇄 사업은 1991년 말부터는 수주 범위를 해외까지 넓혔다. 디지털 인쇄판 출력 시스템(CTP), 친환경 무수수 인쇄 시스템의 국내 최초 도입,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 업체로서 체계적인 품질 관리시스템과 환경 경영시스템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쇄품질을 자랑한다. 2008년에는 1천만 불을 수출하기도 했다.